

몸의 만남 마음의 연결 : 공간의 한계를 넘어

배꼽 빠지겠다! (만3세)

형님들한테 물어보러 가자! 형님들이 필요해! (만3세)

아!! 오늘 동생들 도서관에 초대하는 날!! 조금 떨리는데... 재미있겠다!! 으~~~ 떨려! (만4세)

저는 창문이 많은 도담뜰에서 생각을 해요. 창문이 있으면 생각이 잘 되죠. (만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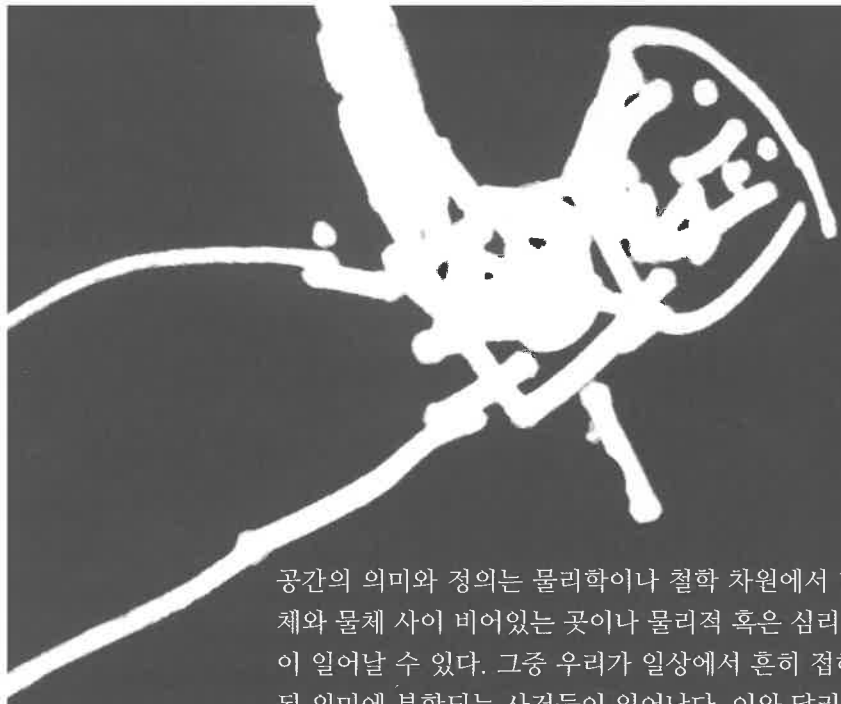
도담뜰이 훨씬 재밌죠, 도담뜰은 그냥 좋아요, 그냥! (만5세)

친구들이 말이 많아지는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는 비밀을 말하거든요. (만5세)

식당이랑 가까워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문이 없으니까 냄새가 잘 들어오죠. (만5세)

오이처럼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연도 잘 날아가요. (만5세)





공간의 의미와 정의는 물리학이나 철학 차원에서 다양하며, 공간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일반 사전에 의하면 ‘공간’은 물체와 물체 사이 비어있는 곳이나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를 말하며, 그 안에서는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중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휴게실, 독서실, 식당 같은 공간들은 물리적 경계에 따라 구획되며, 그 안에서는 주로 지정된 의미에 부합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와 달리 물리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은유적이나 가상적 차원의 ‘공간’도 있다. 이 경우 공간은 사람의 의도와 상상, 혹은 사람들 간의 연결로 인해 생성되는 심리적이며 사회적 공간이다. 심적 거리,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 그리고 가상놀이에서 공간이 지닌 특성은 고정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이고 관계적이다. 역사적으로도 공간에 대한 개념은 변화해 왔다. 철학자 미셸 푸코(Foucault)는 현대 사회의 공간은 다양한 현장들(Divergent Sites)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열려있는 장소들의 연결망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간의 물리적 성격이나 정해진 규범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 질 수 있지만,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우리의 관점에 따라 공간의 의미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육전문가로서 우리는 어린이집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어린이와 함께 일상을 영위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더불어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간인 보육공동체를 지향한다. 유형과 무형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관계 맺기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받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초연결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어린이들은 현실이나 가상의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상호 연대를 이루고 집단지성을 구축할 수 있는 생산적 경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에 재단은 ‘만남과 소통’을 보육과정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간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까? 어린이집 공간 구성의 현주소는 ‘소통과 만남’ 가치 구현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놀이터,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정원, 벽으로 가려진 건물 안에 다양한 기능을 위해 작게 나뉜 공간들, 연령별로 지정된 교실들. 그러나 다행히도 재단 어린이집에는 모두 ‘도담뜰’이라는 작은 공용 공간이 하나 있다. 건물 중앙에 위치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물리적 경계도 견고하거나 선명하지 않다. 따라서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기만 해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생겨나고 구성원 간 만남의 공간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분리하기와 경계 짓기에 익숙한 우리 성인들은 종종 그 공간을 타 공간과 분리하여 오로지 책 진열과 경건한 책 읽기에만 할애하고 그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행동과 경험의 폭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 공간이 지닌 만남과 소통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흔히 공간의 협소함, 불편한 위치, 혹은 진부한 자료가 제약이나 한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공간에 대한 성인의 인식이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는 도담뜰의 물리적 경계와 공간에 대한 개념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시도해 보았다. 우선, 성인이 지정한 책 읽는 공간이라는 고정된 기능을 내려놓고 경험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그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존중하며 지켜보았다. 책을 읽어야 하는 도담뜰은 성인인 교사에게 지식과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교육적 공간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가기 싫은 공간, 재미없는 공간이었다. 때로 교사에게는 독서시간 이외에는 머물 가치가 적은 공간이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마음의 여유, 쉼, 다채로운 만남, 흥미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그래서 머물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남의 공간에는 항상 즐겁고 편안한 감정만이 아니라, 긴장, 두려움, 설렘, 갈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어린이들의 복합적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한편으로 도담뜰은 성인에게는 목표가 분명한 행위의 종착점이었다. 그러나 어린 영아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전이 지점 혹은 탐색을 확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고, 더 큰 어린이들에게 다른 연령 어린이와의 만남은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가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 속 역동적 관계 안에서 찾아가는 맥락이 되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만들어가는 도담뜰 공간에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동시에 공존하였고, 이 의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만남의 장에서 몸이라는 실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몸을 움직여 도담뜰 공간을 탐색하거나 친구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다. 공간을 벗어나 교실과 경험을 연결하고 친구, 부모, 교사와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몸의 움직임과 위치가 중요해 보였다. 코로나19 시대의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슬로건은 어린이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처럼 보였다. 몸의 움직임을 따라 도착한 도담뜰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은 관계를 구성하고 지식을 나누며 그들만의 무형의 공간을 생성해 냈다. 이러한 시도가 도담뜰을 넘어 교실, 옆반 교실, 가정까지 확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사건과 경험의 주인공은 공간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들이었다. 이처럼 공간에 대해 달라진 성인의 인식에 힘입어, 어린이들은 몸이 만나는 공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연결 지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도담뜰은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공간이 아니라 다채로운 의미들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연결의 장(場)’이 되어가고 있었다.

2020년 12월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오문자 대표

몸의 만남, 마음의 연결 :공간의 한계를 넘어



‘코로 읽는 책’이 있는 공간

동혁: 뭐라고 써있게요.

교사: 마음이론? 무슨 내용인데?

동혁: 그건 비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보세요.

교사: 비밀 이야기야?

동혁: (코를 대며) 몰라요.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맨날 달라요. 옷장 냄새도 나고, 이걸 코로도 읽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공간

서원: 엄마는 카페에서 생각이 잘 된대요.

교사: 서원이는 안 했어? 서원도 생각하는 거 좋아하잖아!

서원: 나는 어린이라서 교실이나 도담뜰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창문이 많은 도담뜰에서 생각을 해요. 창문이 있으면 생각이 잘 되죠. 바깥세상을 한 눈에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계속 계속 바뀌는 생각들을 하게 해주죠.

마음의 여유를 주는 공간

형님반 앞에 놓인 색물통을 탐색하던 은솔이. 뒷 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궁금했던 것일까. 소리가 들리는 교실로 다가간다. 문틈 사이로 놀이하는 형님들의 모습이 보인다. 은솔이는 조금 떨어져서 교실 안을 살펴본다. 복도를 지나가던 교사가 문을 조금 더 열어주자 은솔이는 한발자국 더 가까이 움직이며 형님들의 놀이를 살펴본다.

학기 초, 은솔이는 교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도담뜰에서 기관생활을 시작했다. 은솔이는 어린이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갔고, 궁금할 땐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 어린이집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소는 은솔이의 시선을 따라가면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곳 이요.

친구들이 많이 많아지는 곳 이예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는 비밀을 말하거든요
생각이 집으로 돌아가는 곳 이예요 뭐가 되고 싶은지 집으로 돌아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곳 이죠. 상상이나

구름이 제일 잘 보여요. 예쁜 거요
자꾸 변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마음이론이 있어요 또 책으로도 볼 수 있죠.
책을 쌓아서 집도 짓고

식당 이랑 가까워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문이 얇으니까 냄새가 잘 들어오죠

오이 처럼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연도 잘 날아가요
우리 바깥 놀이 나갈까? 나는 도담뜰이 좋은데... 나도 도담뜰 찬성

도담뜰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교사 또한 ‘책 읽는 장소’로써 바라보던 도담뜰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만능 공간’이 되어준 도담뜰 안에서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해나가고 있다.



어린이집을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도담뜰에 머물며 영아들의 본격적인 적응은 시작되었다. 현관 앞에 위치해서인지, 개미와 물고기가 있어서인지, 교실보다 도담뜰에서 더 안정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이후로도 힘들어할 때면 도담뜰에 나가 안정을 찾고 교실에 들어오는 시도가 있었다.

교실 안에서도 적응과정은 조금씩 이어졌다. 상어가족을 좋아하는 영아는 교사에게 상어를 그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종이 위 끼적이기를 하는 등 일과 중 모든 순간에 상어를 접목시키며 안정감을 찾아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아들이 교실보다 도담뜰에서의 머무름을 더 선호하며, 원할 때마다 도담뜰로 계속 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었다. 혹시 교실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것은 아닐지, 교사의 눈이 닿지 않을 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며, 영아들이 찾는 도담뜰을 적응 공간의 출발점으로 다시 들여다보았다.

도담뜰에서의 안정감이 교실과 연결되기 위한 방법으로 도담뜰-교실 그 사이의 복도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이 곳에서 즐거운 경험이 생긴다면 교실로 향하는 길도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

연결됨의 가시화가 필요했다. 먼저 복도에 신체매트를 두었고, 매트 위 놀이를 통해 교실과의 드나들이 많아지며 조금씩 교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여느 날처럼 영아들은 도담뜰에 있는 롤페이퍼 위 상어가족을 이야기하며 끼적였다. 점점 길어진 롤페이퍼를 정리하기 위해 잘라내는 찰나 “긴 종이가 꼭 길 같네.”라는 한 교사의 말이 롤페이퍼를 색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다.

복도에 롤페이퍼 길이 펼쳐진다면?

도담뜰에서 출발한 안정감과 즐거움이 롤페이퍼를 따라 교실에도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도에 부착해 보았다.

이후, 도담뜰에서 종이를 발견하고 그 위에서 길처럼 걷기를 반복한다.

등하원 때, 식당을 이동할 때, 교실로 돌아갈 때는 항상 종이 위를 걸어서 교실로 가는 모습이다.

길 위에서 교사와 함께 그렸던 상어가족을 발견하고 “아빠, 엄마, 아기”라고 외치면, 다른 영아들도 그림을 가리켜 ‘아빠 엄마’를 이야기한다.

위로가 되었던 상어 그림이 길 위에 나타난 반가움인지, 익숙한 흔적 위에 손가락을 얹고 시선이 잠시 머문다.

그렇게 롤 페이퍼 길 위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고, 길을 따라가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교사는 그저 영아들이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구를 인정해주었을 뿐인데...

교사가 기대했던 것 보다 도담뜰과 교실 그 사이에서,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저기 밖에 책 가지고 와도 돼요?

“와! 우리반 넓어졌다.”
 “가보자, 가보자.”
 “나도 갈래.”

“선생님, 있잖아요. 저기 밖에 책 많잖아요. 저기 밖에 책 가지고 와도 돼요?”

수안이 이야기는 도담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교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교실문만 열면 있는 도담뜰에 그동안 영아들은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갈 수 있었던가? 영아들에게 도담뜰을 온전히 내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담뜰과 교실을 연결하되 경계를 줄 수 있는, 교실문에서 도담뜰로 이어진 길목의 만1세반 교실문 옆으로 투명발을 달아 공간을 재구성해 주었다. 영아들은 교실과 도담뜰을 넘나들며 도담뜰을 교실의 일부로, 놀이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교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권의 책을 교사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영아들이 도담뜰을 자유롭게 오가면서부터 도담뜰에서는 교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책을 꺼내 보다 점점 친구와 함께 책을 들여다 보았다. 교실에서부터 도담뜰로 이어지는, 작고 좁은 길목의 공간에 머물기 시작하다 더 적극적으로 넓은 도담뜰로 넘어다니며 영아들 스스로 도담뜰이라는 공간을 주체자로서 경험해 가고 있었다.



예하: 우리 이거 책 너무 재밌지?
 수안: 그치? 우리 같이 넘길까?
 예하: 좋아!
 수안: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넘겨.
 태원: 그럼 다음에 내가 또 할래.
 수안: 자, 이제 넘겨!
 예하: 이제 다음 차례야. 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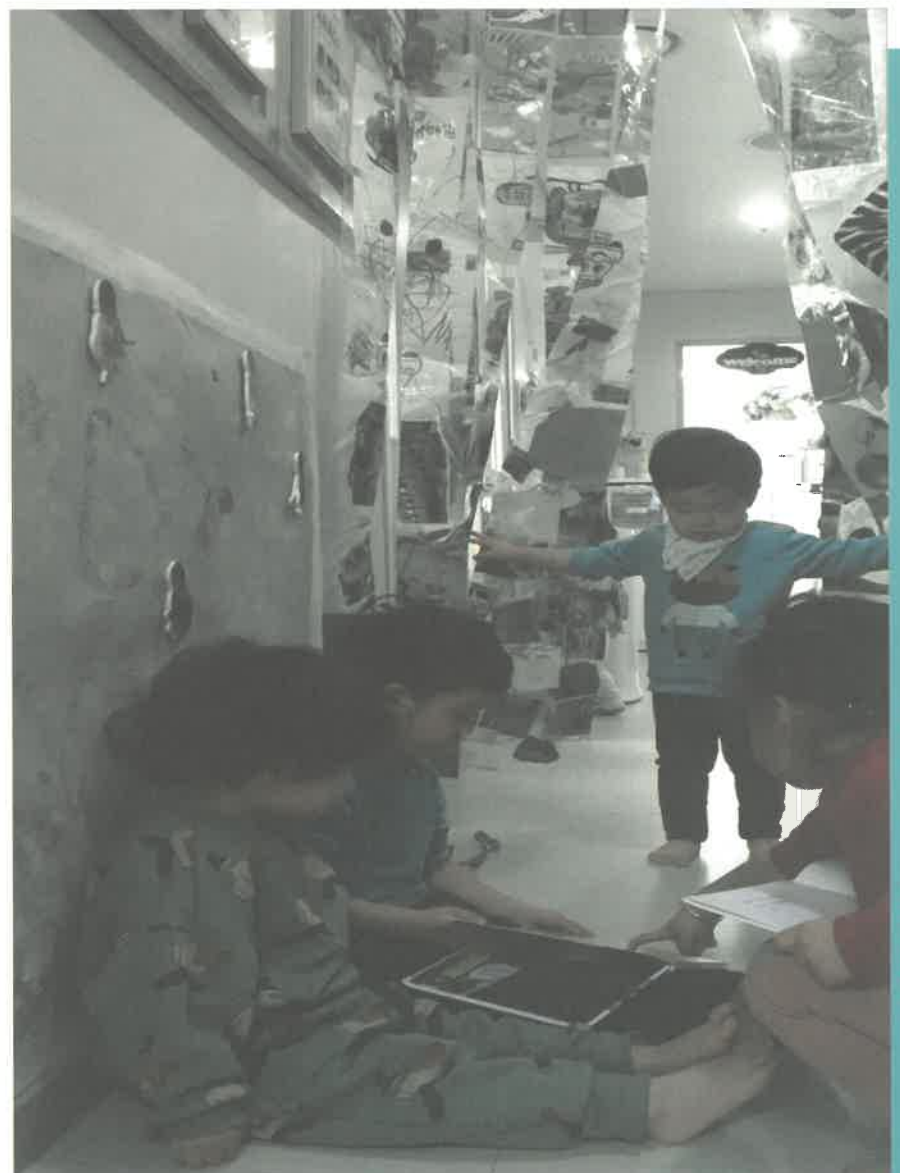
우준: 태원아, 너 뭐해?
 태원: 나 이 책 읽을 거야.
 우준: 나도 보여줘.
 태원: 그럼 이렇게 보여줄게.
 우준: 그 다음에 내가 읽어볼게.



만1세 영아들도 교실문 앞의 투명발에 관심을 가지며 걸음을 멈추고, 투명발을 들춰보기도 했다. 그러다 만1세와 만2세 영아들끼리 마주치기도 하고, 서로에게 다가가 함께 어울려 갔다. 경계를 허물고 공간의 확장을 넘어 연령간의 경계까지도 넘어서고 있었다. 도담뜰에 투명발을 걸어둠으로 교사는 교실과 도담뜰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다른 반과의 경계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었으나 어쩌면 그마저도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함에도 경계 아닌 듯 한 경계, 투명발이란 특별함이 안에서 나갈 수 있으면서도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같다.



수안: 어? 아까 본 토끼잖아.
 우준: 맞아. 토끼야. 토끼.
 도빈: 형아, 이거 토끼야?
 우준: 응. 이거 토끼야. 아까 봤잖아.
 예준: 뭐해? 뭐해?
 수안: 어! 동생 또 왔다.
 우준: 선생님, 동생들이 토끼 좋아하나봐요.
 이거 토끼 볼래?



시끌벅적 도담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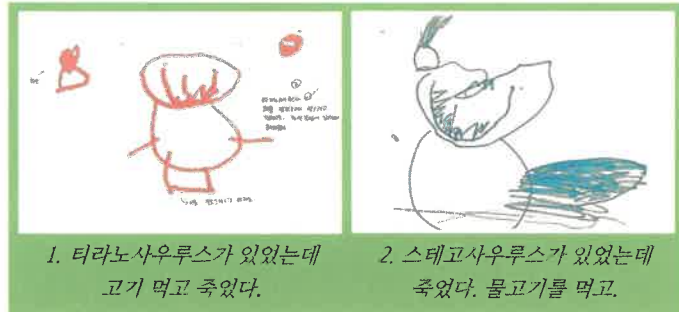
만4.5세
만3세

“배꼽 빠지겠다!”



동생 작가가 형님 독자를 만나 이야기가 풍성해지다

교실에서 시작된 ‘책 만들기’ 놀이가 ‘작가와 만남’으로 이어졌다. 어린이들은 기성의 책을 읽을 때보다 이야기에 더욱 몰입해 갔다. 어린이들이 만든 책을 형님들과 나누고 싶어하여, 소통의 장으로 지지해 주기 시작한 ‘도담뜰’에서 형님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가져보았다. 어린이들의 책 소개에 형님들은 집중하며 책에 대한 토론의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가기도 했다. 그로 인해 어린이들은 기존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며 타인의 반응과 질문한 의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새롭게 해석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정원: 근데 왜 스테고는 물고기를 먹고 죽었어?
수빈: 너무 늙었기 때문이지!
마루: 아니면 육식 공룡인데 물고기를 먹으면 못 살고 풀을 먹어야지 살아서 그런 거 아냐?
수빈: 아니. 육식공룡은 고기를 먹고 초식이 풀을 먹는 거야.

형님이 작가가 되어 동생 독자와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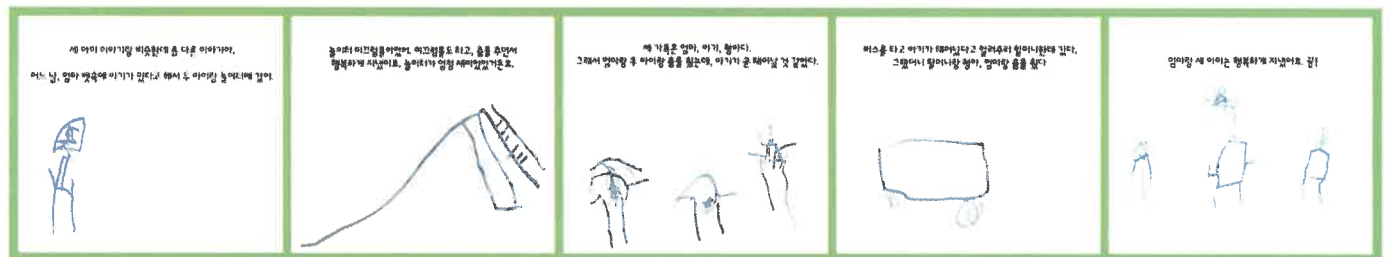
동생 작가와의 만남 이후 형님반에도 책 만들기가 발화되었다. 그리고 늘 공룡을 주제로 책을 만들던 동생반 어린이들은 형님들 덕분에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책 ‘세 아이’의 형님 작가와 만나 토론하며 그 책을 더 깊이 이해해 갔다.

지원: 해인이 언니, 왜 아이는 셋 다 재울러? 아버지가 씨를 뿌리자고 하면 “싫어요”하고 눕고?
해인: 음, 그 세 아이들은 그 마음이 놓고 싶고, 너무 땀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싫었나 봐.
목욕하기 싫었는지도...
지원: 그래서 마음이 나빠?
해인: 나뻤지.
시연: 왜 세 아이들이 있었어?
해인: 첫째는 농부를 하기 싫었고, 둘째는 물을 주기 싫었고, 셋째는 씨앗을 주기 싫었어. 그래서 세 명이 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낳고 나서 죽었고.
수빈: 왜?
해인: 음, 밥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애였으니까.
수빈: 언니,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 엄마도 없었으니까.
해인: 많이 부자가 되어서 엄마가 필요한 걸 사고 그러고 점점 어른이 되었는데.



해인(만5세)이가 만든 『세 아이』 책

마루(만3세)가 만든 『세 아이 이야기랑 비슷한데 좀 다른 이야기』 책



비슷한데 좀 다른 이야기

형님 작가와 만난 이후 ‘세 아이’ 이야기처럼 비슷한 색깔의 쓰기 도구를 선택하고, 글자를 컴퓨터로 작업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형식과 구조가 비슷한 책을 동생들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형님책과 연결지어 보려 하고, 이를 위한 토론의 과정에서 이야기의 시점, 흐름, 내용을 고려해 갔다.

도담뜰과 각반 교실을 넘나들며 어린이들이 서로 만나 책을 중심으로 생각이 전염되고 내용이 변화하며 소통을 통한 협력적 탐구가 일어나고 있었다.

마루: 이걸 세 아이랑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예요. 엄마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행복하게 살 때 이야기예요.
교사: 형님책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중이야?
마루: 아니예요? 이걸 세 아이랑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예요. 형님 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예요!

지원: 진짜 재미있다!
마루: 그럼 우리 재미있으니까 이어지게 하나로 합치는 건 어때요?
하나로 합치면 형님 책 다음에 마루 책을 넣는 건가?
지진: 아니지! 내 생각에는 형님 책에는 엄마가 죽어서 없잖아.
지원: 맞아. 그러니까 마루 책이 더 먼저야!
마루: 음... (형님 책은)엄마가 없으니까... (마루 책은)있을 때 이야기를 적은 거죠.



공간

어느덧, 동생들을 향하게 된 책

꽃잎반 도서관에서 시작된 소통

공감

동생들을 위한 본격 작업

책과 친해지기 위해 설치된 도서관은, 운영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책을 만드는 작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좋아하는 캐릭터, 상황 등 담겨진 책이 쌓여가며 그 동안 만든 책들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펼쳐진 책들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 중, 한 유아의 '비슷한 책을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로 책을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4가지 장르(무서운 책/ 마리오 시리즈/ 웃긴 책/ 동생 위한 책)로 분류되었고 표기를 위한 색깔이 입혀졌다. 그 중 동생들을 위한 책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교사는 아이들이 '왜? 동생들을 위한 책에 집중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작은 사이즈의 종이를 보며 '손이 작은 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어찌면 동생 위한 책은 만들기가 쉬워서 일지도 모르겠고...

꼭 꼭 붙여!
동생들한테 빨리 책 읽어주고 싶다!



이 책은 무서우니까
동생들 잘 못 보게
맨 위에다가 붙여!



동생들 위한 책은
동생들 키를 고려해
맨 아래쪽에 위치했다.



교사: 오늘은 무슨 날이제~?
민서: 아!! 오늘 동생들 도서관에 초대하는 날!!
나운: 조금 떨리는데... 재미있겠다!

으~~~떨려!

그냥 도서관이 아닌 그 동안의 노력과 고민이 담긴 꽃잎반 도서관이다. 그만큼 가볍게 초대할 수 없었고, 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려할 점을 되짚으며 오픈을 준비했다. 아이들의 표정과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전해졌다.

초대한 이후 동생들의 반응을 계속 궁금해하거나 그 후에도 도서관에 머물고 갔는지 등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동생들의 오고감을 신경 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활력의 공간이 된 도서관



꽃잎반 도서관은 도담뜰에 위치하며 모두가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도서관이라는 역할을 넘어 슬쩍 기웃거리 보고 싶도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져 갔다.

형님들도 놀러왔다. 동생들에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책을 읽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읽기 힘들 때에는 오히려 역할이 바뀌어 형님들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 등 동생들을 초대했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소통인 듯했다.

항상 비워뒀던 계단 밑은 이제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배려가 묻어나는 활력의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 공간이 변화되고 채워지며 그 속에서 우리, 동생들, 형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기 다른 분위기의 소통과 감정이 담겨져 가고 있다. 이런 변화 속, 공간이 주는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 교사 또한 생각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도담뜰에 자리한 꽃잎반 도서관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핫 플레이스로 남을 것이다.

이제 막 이동하기 시작하는 만0세 영아들이 책을 읽는, 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도담뜰에서 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만0세가 도담뜰을 자유롭게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아들은 도담뜰의 입구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간에 대한 선입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이용했다. 종횡무진 어린이집을 누비는 영아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그간 '위험하기 때문에', '발달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는 성인의 고정관념으로 영아들의 자유로운 탐색과 배움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더불어 영아의 다양한 표현 언어 뿐만 아니라 영아의 '움직임' 또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아는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담뜰은 영아만의 소통 방식으로 세상과 이어주는 '마법의 다리' 같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아들의 계속될 움직임을 그들과 함께 따라갈 것이다



- 4~5월 익숙하고 가까운 공간 위주로 이동
- 6~7월 새롭고 먼 공간으로 이동. 다양한 사람·사물과 만남. 거리두고 보기, 어색한 표정
- 8~9월 목적지(공간, 사람)를 정하고 이동. 적극적으로 다가가 눈 맞춤, 미소, 건네기

움직이고 만나고 소통하다



1. 이걸 고슴도치처럼 생겼는데, 먹는 거예요.

2. 이거는요~ 지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3. 이거는요~ 한 개만 먹을 수 있는데, 엄마가 줄 때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4. 이걸 먹는 건데, 안에는 장미꽃 같은 씨가 들어있어요. 분홍색이랑 하얀색이에요.

5. 나는 이거 매워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는 짜장면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이걸 양치할 때 쓰는 거예요.”

“칫솔?”

“아니~ 칫솔이랑 만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아~ 알겠다! 치~약!”

“딩동댕~”



YOU QUIZ? YES!!



“이번엔~ 얼룩덜룩 해요.”

“정답! 얼룩말!”

“땡! 땡! 점이 있어요. 점이 엄청 많아요!”

“음~~~~~ 정답! 치타?”

“딩~동~댕~!”

“예!! 내가 맞췄다!!!”



어린이들은 틈만 나면 서로에게 퀴즈를 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퀴즈의 소재가 되어 재미있고 특별한 퀴즈를 만들어갔다. 교실에서의 퀴즈 놀이를 가정과 함께 공유하니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퀴즈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어린이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교사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하고, 호기롭게 형님반을 방문하여 퀴즈를 내기도 했다. 하원 시 부모님을 만나 돌발 퀴즈를 내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퀴즈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실 밖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해 갈 수 있도록 도담뜰과 현관에 ‘YOU QUIZ 존’을 구성해 주었다. 어린이들은 YOU QUIZ 존에서 많은 사람들과 퀴즈 놀이의 즐거움을 나누어 갔다.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퀴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에 함께 즐길 수 있는 퀴즈 대회를 도담뜰에서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함께 모이는 퀴즈대회를 개최하기 어렵게 되어 그 대안으로 ‘ZOOM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비대면 퀴즈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화상으로 진행된 퀴즈 대회는 어린이들이 화면으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며 “정답!”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복도 여기저기서 들릴 정도로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퀴즈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열매반에서는 ‘9월 9일 열매 퀴즈 시작합니다.’라고 적혀진 포스터가 만들어졌고, 꽃잎반에서는 자유 놀이 중 퀴즈대회 사회를 본 선생님을 흉내 내며 ‘퀴즈 골든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잎새반에서 전해지는 퀴즈 놀이의 한 끝을 잡고 각 반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실에서 시작된 퀴즈 놀이가 도담뜰로, 다른 반 교실로, 가정으로, 현관으로 확장되어갔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모두의 퀴즈 놀이가 되었다.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어린이집 전체 구성원들과 그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1. 밤송이
2. 수박
3. 사탕
4. 복숭아
5. 양파

“컴퓨터에
선생님도 나오고,
친구들도 나와서
신기했어요.”

“동생들 퀴즈 문제가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아, 도담뜰 가자.”
 “아... 책 보기 싫은데... 거기는 책만 봐야 하는 곳이잖아요!”



교실과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책을 빌려야 할 때만 갔던 도담뜰을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5세반 세 교실이 모여 있는 복도 한 켠에 도담뜰을 구성해 주었다. 그러나 교사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책만 봐야 하는 곳’이었던 도담뜰은 가고 싶지 않은, 재미없는 공간이었다.
 도담뜰에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린이들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책을 놀잇감 삼아 놀거나 간간히 책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다!



“이 책 너무 재밌는데... 아...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책 잘 읽는데...”

어린이들의 요구로 가정의 지원을 받아 부모의 목소리로 녹음한 동화를 도담뜰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자 부모들도 더 열정적으로 녹음해 주었다. 처음에는 부모가 들려주는 동화가 전부였는데 점점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녹음을 하거나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목소리나 효과음을 넣기도 하며 풍성한 음원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녹음된 동화를 들으며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져갔다.

어린이들에게 ‘책이 재미없는 공간’ 도담뜰이 어느새 ‘책이 재미있는 공간’으로 되어갔다.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녹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어린이들은 책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게 되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



단우: 이거 누구 엄마예요? 우와! 엄청 재밌다!!
 아, 엄청 웃겨! 강후야, 너네 엄마 되게 잘 읽는다!!
 강후: 우리 엄마 동화 재미있다고?

이예성 엄마
 9월 29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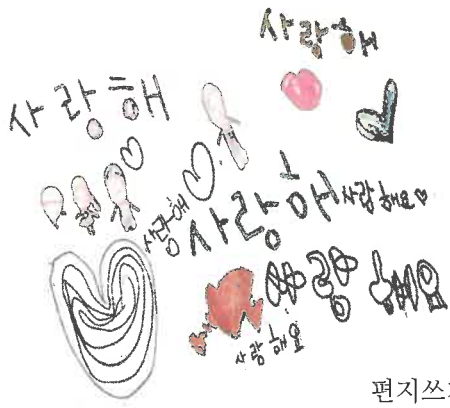
또 가족이 들려주는 동화는 평소에 궁금해했던 친구의 부모님과 가족이 참여하여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예성이가 직접 참여하여 녹음할 때에는 친구들에게 들려줄 것을 기대하여 온 집중을 하여서 몇 차례 다시 녹음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던 것 같아요.



도담뜰로 부치는 편지:

우리가 通(통)하는 방법

첫째 해, 편지로 놀이하며 마음을 이어가다



편지쓰기를 즐겨하던 작년 찬솔반 어린이들의 편지에는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랑해'였다. 일상 속에서는 사이좋게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갈등, 다툼의 모습도 자주 발견되는데, '사랑해'로 가득 차 있는 편지를 보며, 어린이들에게 편지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했던 어린이들의 편지에 다양한 이야기와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다. 평소 차마 전하지 못했던 '좋아하는' 마음, 싸우거나 놀린 후 사과하는 '미안한' 마음, 속상한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 등이 서로에게 전해졌고, 편지가 어린이들에게 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점차 다른 학급 동생들, 선생님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싶었던 어린이들은 도담뜰에 커다란 우체통을 만들어 놓아두게 되었다.

둘째 해, 소통을 위해 도담뜰에서 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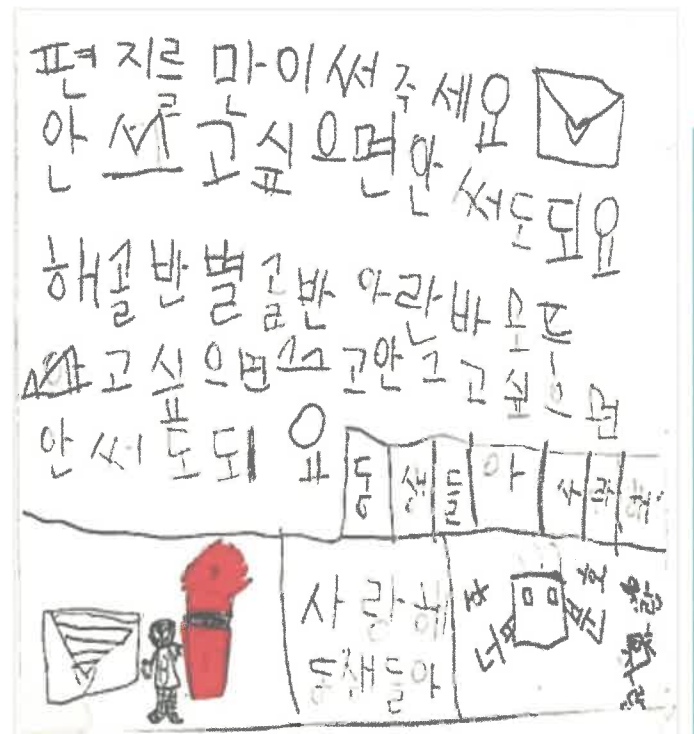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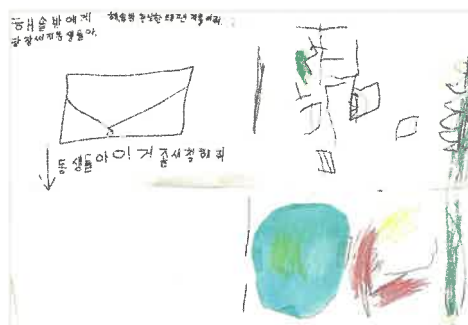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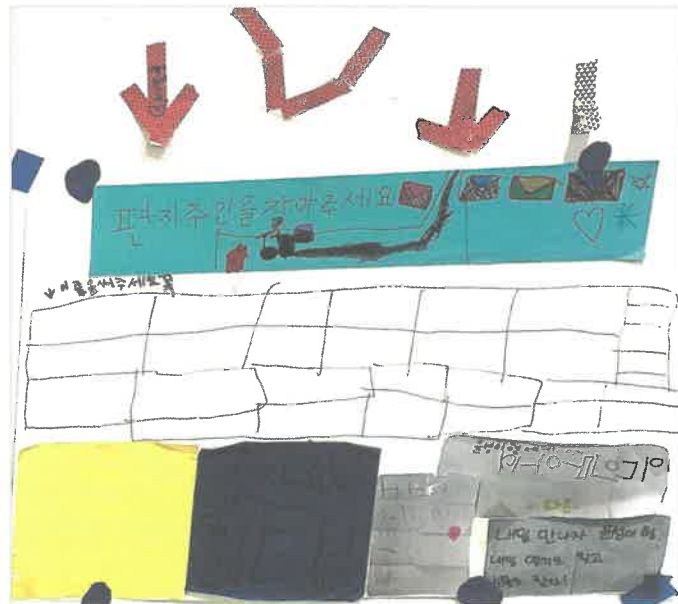
해가 바뀌어 혼합연령 학급인 찬솔반의 구성원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편지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는 계속되었다. 어린이들은 다른 학급 구성원들과도 편지를 쉽게 주고 받기 위해, 다시 작은 우체통 5개를 만들어 도담뜰과 각 반 교실 앞에 하나씩 놓아 두었다. 그리고 이 우체통들을 통해 찬솔반 어린이들이 동생들에게 보낸 편지 몇 통을 계기로 모든 학급이 교실이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생들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찬솔반 우체통에서 발신자 및 내용을 알 수 없는 편지가 여러 장 발견되었고, 어린이들은 편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이 '의문의 편지들'을 붙여 만든 포스터를 도담뜰에 게시하였다. 포스터에 대해 관심이 적은 동생들을 위해 눈에 띄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포스터를 붙이고 붉은 색 화살표로 안내 표시까지 남겨주니, 관심을 갖게 된 동생들 중에서 편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편지의 주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어린이들은 '도담뜰이라는 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소통 방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찬솔반 어린이들은 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대했지만 언젠가부터 웬일인지 동생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교사: 답장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린이들: 답장 써달라고 써서, 저번에 한 것처럼 저기 도담뜰에 붙이면 되잖아요!

이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도담뜰을 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떠올리고 활용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들은 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색을 칠하면 숨겨진 글씨가 나타나는 '비밀 편지'가 포함된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어 도담뜰에 붙였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보게 된 해솔반 동생들에게서 답장이 드디어 도착했다.



도담뜰과 복도는 어린이집 구성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그 곳에 놓아둔 우체통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다른 학급의 어린이들, 교직원들도 편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 어린이들은 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를 통해 도담뜰은 어린이들에게 그저 '책을 읽는 곳, 지나다니던 곳'에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공동의 관심사 등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0. 몸의 만남, 마음의 연결: 공간의 한계를 넘어
1.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다
2. 교실-도담뜰, 그 사이에서
3. 저기 밖에 책 가지고 와도 돼요?
4. 시끌벌적 도담뜰
5. 공간(間) 공감(感): 꽃잎반 도서관에서 시작된 소통
6. 움직이고 만나고 소통하다
7. YOU QUIZ? YES!!
8.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다!
9. 도담뜰로 부치는 편지: 우리가 通(통)하는 방법

본 패널모음집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장은 본 재단 프로젝트의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어지는 9개의 현장 사례들은 도담뜰의 새로운 의미를 어린이들이 구성해나간 과정을 보여준다. 패널의 제목 선정과 관련 정보의 표기 방식에도 성인보다는 어린이의 관점이 더 두드러진다. 패널의 첫 사례는 재단이 이 프로젝트에 접근해 간 출발점, 즉 '어린이의 시선에서 도담뜰 바라보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후 이어지는 8개 사례들의 구성 순서는 도담뜰과 교실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놀이하는 공간과 시간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향을 보여주도록 배치되어 있다.